북스

Books

동서 충돌 원형 페르시아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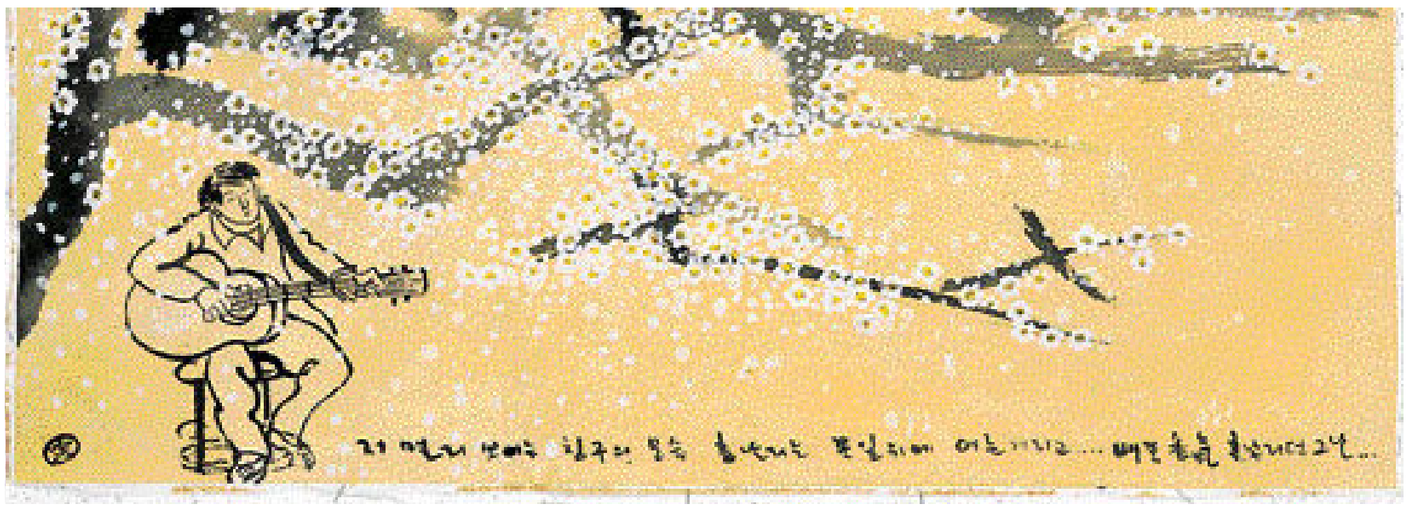
톰 홀랜드 '페르시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명을 발전시킨 세계 제국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폴리스가 주축이 된 아테네, 스파르타 등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몰락한다.

'페르시아 전쟁'의 저자 톰 홀랜드는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지 않았다면, '서구'라는 것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서구 우월주의적 시각을 지적하고 서양 고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한다.

저자는 9·11 이후 심각해진 동·서양 충돌의 원형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라면서, 전쟁 당시의 양 측이 가졌던 갈등의 원인 등을 분석한다. 14장의 지도는 전쟁에서 군사들의 행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책과함께·2만3천원〉



상처 많은 70년대 학번에게 여전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가수 김민기를 추억하며 저자가 그린 '시절은 가고 노래만 남아'.

藝人 31명의 생생한 편지속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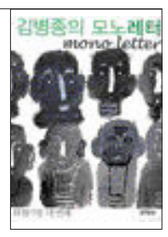
지난 1999년 '김병종의 화첩기행'을 처음 펴내면서 작가는 이런 글을 남겼다. 예술대학에서 접장질을 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바로 엊그제 유명을 달리한 선배 예술가들의 행적마저 희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특히 세계 유명 예술가들의 유적지를 방문하고 돌아올 때면 우리 예술가의 쓸쓸한 뒷자리가 생각나 분노도 일었노라고.

우리 예인(藝人)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화첩기행'을 통해 마음의 빚을 조금은 갚아가며 독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저자가 네번째 화첩기행 '김병종의 모노레터'를 펴냈다.

기존의 화첩기행이 그의 글과 붓질을 따라 지금은 가고 없는 이들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만나는 '모노레터'는 이미 떠나 버린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와 한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예인(藝人)들의 생생한 '육성'을 들을 수 있어 행복한 책이다.

육필 원고를 고집하는 저자는 '만년필로 눌러 쓴 편지에 우표를 붙여 보내는 고전적인, 평소에 쓰고 싶었던 편지글' 형식으로 31통의 편지를 띄우고 그림을 그렸다. 최명희·김민기·김용택·박남준·진은숙·

네번째 화첩기행 '김병종의 모노레터'



윤이상·허균·헬렌권·이어령·오정희·최승희 등이 그의 편지 속 주인공이 되었다.

첫번째 편지를 보낸 곳은 '혼불'의 작가 최명희의 첩첩산중 고향집이다. 17년 세월 동안 '혼불' 10권을 쓰고 생을 놓아버린 소설가 최명희. "소설이라는 게 그토록 뼈를 삭이고 육신을 허물어내듯 쓰는 것이라면, 그 짓을 누가 하겠냐"는 저자의 항의에 "내가 못나서 그렇지요"하며 웃고 말던 최명희와의 추억을 더듬는다.

또 '나의 1970년대야 말로 김민기라는 창을 통해 바라보이는 세계였다'고 고백한 저자는 서울대 미대 입학 얼마후 한 모임에서 만난, 엊그제 시골에서 상경한 듯한 '밍기형'이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을 부르던 모습을 추억한다. 30여년이 넘은 지금도 소년처럼 히죽히죽 웃고 있는 그에게서 저자는 '조용한 불꽃'과 '꽃 피우는 사람'을 떠올린다.

오래만에 나들이에 나선 장애인 시인 권오철이 저자에게 남겼던 '햇빛…감사…바람…감사…꽃…감사'라는 말은 저자는 물론, 독자의 눈시울도 시큰하게 만드는 대목이며 이중섭·윤이상·유치환과 서정주가 드나들던 진해의 흑백다방을 홀로 지키고 있는 피아니스트 유경아의 이야기는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저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독일 함부르크와 베를린, 일본 교토, 중국 상하이 등 세계 각국을 찾아 예인들의 흔적을 찾고 그들과 대화하며 글을 써 내려갔다.

사람들은 서울대 미대 교수, 화가라는 저자의 호칭에 더 익숙하다. 하지만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될 정도의 문재(文才)에다 문학에 대한 경외까지 보태진 저자의 글은 진솔함이 배어 있어 읽는 맛이 그만이다.

행여 책에 등장하는 31명의 예인들 중 낯선 인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삶을 풀어낸 저자의 글과 그림을 접하면 내가 몰랐던 어떤 예술가들을 '제대로'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책의 매력이다.

〈효형출판·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의 아버지 박목월

박동규 시인이 쓴 사부곡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나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놈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프다고 해도 괜찮아" 하면서 등을 내밀었다. 나는 아버지 등에 업혀 토함산을 올랐다. 나의 아버지 목월 시인은 이렇게 자상한 성품이었다.'

신발이 없어 맨발로 토함산을 오르면서도 '발바닥이 아프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는 실거운 맏아들 동규가 안타까워 눈물을 보였던 시인 박목월(1916~1978)은 따뜻한 아버지였다.

박목월 시인의 그늘에서 자라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박동규(69·서울대 명예교수) 시인이 쓴 '아버지와 아들'은 부친을 그리워하는 아들의 마음이 담긴 사부곡(思父曲)이다.

엄격했던 목월은 독특한 방식으로 자식사랑을 실천한 아버지였다. 그는 아들이 돈을 훔쳐가자 양심에 호소하는 편지로 '어린 도둑'의 눈시울을 적신다. 목월의 대표시 '나그네'에 얽힌 일화도 등장한다. 궁핍했던 목월은 어느 날 구두 밑창이 해진줄도 모르고 길을 걷다가 문득 흙의 감촉을 느낀다. 그 길이 '나그네'에 등장하는 '남도 3백리' 같았고, 산기슭 마을은 황혼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다.

박동규 시인은 '돈이 아쉬울수록 붓이 미끄럽게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고민했던 예술가 목월의 이야기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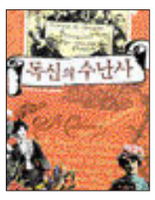
이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박시인의 글들은 목월의 참모습을 보게한다. 자취방 방값이 없어 학교 온실에서

박목월 시인과 아들 박동규(왼쪽) 서울대 명예교수.

가마니를 덮고 자면서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시심을 키운 이야기, '아들과 함께 책을 쓰고 싶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국문학과에 진학한 일 등이 소개된다.

박동규 시인은 집필동기에 대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부모 사랑의 원형을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밝혀보려 했다"고 말했다. 〈대산출판사·8천5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독신의 수난사=고대 페르시아에서 21세기 뉴욕까지 인간의 역사를 독신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책이다. 자신 역시 독신주의자인 저자 장 클로드 볼로뉴는 프랑스 혁명 등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독신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깊이 통찰한다. 〈이마고·2만5천원〉

▲인도 바로보기=인구 11억의 초거대 시장, 인도. '잠자는 코끼리'로 불리며 IT인력을 토대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도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인도 권위자인 고홍근, 최종찬 교수는 현지 취재를 통해 생생한 인도를 전한다. 두 교수가 만든 홈페이지 '인도 바로보기'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네모북스·2만3천원〉

▲뜻밖의 세계사=역사를 만들어간 것은 '위인'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저자 엄창현의 말처럼 역사 속 위인들의 시시콜콜한 사건들을 통해 역사를 이야기한다. 자동차광이었던 히틀러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세계사가 펼쳐진다.〈페이퍼로드·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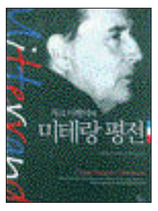
▲이문재 산문집=25년간 시인으로 활동해 온 이문재가 처음으로 펴내는 산문집이다. 여러 지면에 실린 글 가운데 오십여 편을 묶었다. '나는 아날로그다' '몸의 노래' '미래주의보' '이 음식이 어디서 오셨는가' 등 네 묶음으로 나눠져 있다. 〈호미·1만원〉

▲고딕소녀=기괴하고 비현실적인 인물과 사건을 다루는 고딕 문학의 대표작가 카슨 매컬러스의 고전이다. 기형에 가까운 거구의 체구를 가진 12살 소녀 프랭키를 주인공으로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춘기 소녀의 성장통을 기이한 에피소드와 심리묘사를 통해 섬세하게 그려낸다. 〈열림원·9천800원〉

▲여신이여, 가장 큰 소리로 웃어라=알록달록한 색상에 뚱뚱한 몸매를 가진 조각상 '나나'로 20세기를 대표하는 누보 레알리즘 예술가로 꼽히는 니키 드 생팔의 생애를 다룬 전기다. 저자 슈테파니 슈뢰더는 니키의 파란만장한 삶을 조명한다. 〈세미콜론·1만8천원〉

▲한국 생활문화 사전=강준만 교수가 '기록'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한다. 저자는 대중의 생활이나 일상적인 삶의 기록에 인색한 우리의 현재에 대해 지적하며 신문·잡지 등 간행물을 인용해 생활문화를 검증한다. 〈인물과사상사·2만2천원〉

▲평양프로젝트=만화가 오영진이 200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에 연재한 내용을 엮어냈다. 남북교류협력단에서 활동하게 되는 남한의 젊은 작가 오공식이 좌충우돌하며 겪는 북한과 북한 사람들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창비·9천500원〉



▲자크 아탈리의 미테랑 평전=프랑스의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가 미테랑 사망 10주기를 맞아 펴낸 평전이다. 1981년 대통령 선거에서 65세의 나이로 프랑스 사상 최초 사회당 출신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유럽 연합' '좌우 연정' 등 세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미테랑의 삶을 추적한다. 〈뷰스·2만3천원〉